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사회적 자본과 자유주의

[발제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2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개념이 경제적 자본 외에도 인적자본, 창의 자본으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과 문화 투자,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화된 대중 신뢰, 시민적 규범, 호혜성 등의 문화적 측면과 네트워크, 사회적 연대, 자발적 결사체 등의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자본은 정부 성과를 효율적이게 하며 기업 혁신을 유발한다. 나아가 집단적 공동체 프로젝트, 지역성과, 개인의 웰빙,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활발한 사회적 참여와 자발적 결사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통합과 질서 유지,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협조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사회적 자본과 자본주의: 경제적 거래에서 계약과 이행에 따르는 거래비용은 신뢰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에 의해 절감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자유주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방임 자유주의이며 국가에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에게 힘이 될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참여도, 사회적 신뢰, 정부신뢰, 사회적지지, 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민주화된 이후 한국의 비영리 단체의 수는 늘었지만, 참여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 신뢰, 즉 공적 신뢰는 한국이 약 25%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이 40~50%, OECD 평균이 30%인 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낮다. 자원봉사, 기부 참여율 등 한국의 사회적지지 참여율은 1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 (지정자 토론)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사체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라 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운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만이 답이 될 수 있다.

## ◆ 자본과 사회적 자본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증식을 목적으로 처음보다 더 많은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본, 즉 화폐에 기반한 자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적 자본 외에도 우수한 인력과 혁신이 중요해졌고 이 결과 자본의 개념이 인적자본, 창의 자본으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재산의 상속보다도 교육과 문화를 남겨주는 문화자본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비경제적 요소인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해지면서 물적 자본의 개념이 사회적 자본으로 확장되었다.
- ◆ 사회적 자본을 문화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일반화된 대중 신뢰, 시민적 규범, 호혜성 등은 문화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되며 네트

워크와 사회적 연대, 자발적 결사체 등은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 ◆ 이 같은 사회적 자본은 국가 수준으로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기업에는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인프라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기업에게는 혁신 유발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집단적 공동체 프로젝트 또는 지역성과를 내게 하며 개인 수준으로는 웰빙,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 ◆ 삶의 질은 나의 만족과 삶의 수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만족에도 영향을 받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고, 타인에 대한 동조 압력이 낮으며,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가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 ◆ 사회적 자본의 유형

### 가. 네트워크의 두 유형

- ◆ Robert David Putnam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결이 어려운 혹은 안 되어있는 두 집단을 연결해주는 역할 즉 BRIDGING(다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그리고 이미 연결된 집단을 끈끈하게 하여 이득을 얻도록 하는 BONDING(결합) 네트워크 자본이다. 집단 내부의 결속과 집단 간 연결의 역할을 하는 BRIDGING과 BONDING이 균형을 이룰 때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 나. 결사체의 두 유형

- ◆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사회의 기초로서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수행한다. 연고와 이해관계에 의존한 결사체는 강한 내부 결속력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폐쇄적이고 경험과 정보가 내부에 제한되어 좁아질 우려가 있다. 관심과 취향에 의존한 결사체의 경우 개방적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험과 정보가 다양하다. 결사체는 결국 운영과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위계적 혹은 수평적, 폐쇄적 혹은 개방적, 독단적 혹은 민주적인지에 따라 결사체의 행태나 경험도 달라진다.

### 다. 신뢰의 두 유형

- ◆ 신뢰란 자신의 이해를 심각하게 좌우할 수 있는 위험부담 상황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이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는 사적신뢰와 공적신뢰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연고에 의존한 사적신뢰는 특수 관계에 집중되어 신뢰의 반경

이 좁다. 반면, 공적신뢰는 성숙한 제도나 문화에 의존하는 일반화된 신뢰로서 보편적이며 그 반경이 넓다.

- ◆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상호의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협동과 헌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뢰이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상호조정 비용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이는 계약에서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사회적 자본과 가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 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 활발한 사회적 참여와 자발적 결사의 활성화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통합과 질서 유지,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협조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의 영향으로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배경으로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폐쇄적인 분위기의 네트워크와 결사체가 이뤄지고 있다.

### 나. 사회적 자본과 자본주의

- ◆ 경제적 거래에서 계약과 이행에 따르는 거래비용은 신뢰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에 의해 절감될 수 있다. 혁신과 창업에 필요한 협업의 기반으로 동료 혹은 동업자, 업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거래비용을 낮춘다. 시장의 경제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나 기업에서 조직적인 시민행동 역시 상호신뢰, 제도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 다. 사회적 자본과 자유주의

- ◆ 자유주의와 ‘사회적인 것’은 공존이 어려운 관계라는 인식이 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절충인가 아니면 혁신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의 과잉이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체주의의 과잉이 문제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방임이 되며 국가에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것, 지나친 공동체주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적 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편향적 기대와 의존적 경향을 보이며 한국의 공동체주의는 집단적 이기주의, 집단적 지대추구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 자유주의가 공동체적 요소를 끌어안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취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에게 힘이 될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한국 사회적 자본의 현실

- ◆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 한국의 비영리 단체는 크게 늘어 사회적 참여가 활발한 듯 보인다. 그러나 단체의 수와는 별개로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도는 약화되고 있다.
- ◆ 사회적 신뢰, 즉 공적 신뢰는 한국이 약 25% 수준이다. 서구 선진국이 40~50%, OECD 평균이 30%인 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공적 신뢰와 비슷한 수준을 띠고 있어 대부분의 서구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 ◆ 자원봉사, 기부 참여율을 대표적인 사회적지지 수준으로 볼 때 한국의 참여율은 10% 정도 수준이며 기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참여나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보았을 때 역시 한국의 사회적 지지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특별히 사회적 자본이 편향적으로 고령층을 위협하는 양상을 보인다.
- ◆ 한국의 공정성, 정부 신뢰 역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믿는 사회가 정부나 공적 신뢰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공정성은 제도의 운용뿐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상호신뢰와 관련이 있기에 단순히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 ◎ 지정토론자의 토론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

- ◆ Amartya Kumar Sen은 ‘발전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곧 발전이다.’ 즉 자유란 발전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과 목표이며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Sen이 말한 자유의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필수 구성요소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둘째, 경제적 용이성 셋째, 사회적 기회 넷째, 투명성 보장 다섯째, 안전보장이다.
- ◆ 사회적 자본은 상호호혜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사회적 연대, 자발적 결사체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상호 연대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현 세대는 관계설정의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관심분야에 관한 결사체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결사체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라 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운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사체가 개인의 욕망을 잘 발현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이 떠나고 있다.
- ◆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참여를 통해 자발적 결사체가 계속해서 다시 생기고 발전해나갈 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자본(참여)과 사회적 기회(역량, 자유) 그리고 적절한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유주의는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